

한 · 중 특허청, 심사결과의 공동활용 추진

□ 김광림(金光琳) 특허청장과 왕징훤(王景川) 중국 지식산업국(知識產權局) 청장은 4. 9(화), 제주 롯데호텔에서 「제8차 한·중 특허청장회의」를 가졌음

□ 이 자리에서 한·중 양국 청장은 경제교역의 확대에 따른 양국간 특허출원 증가에 대응하여 특허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

* 한국의 대 중국 특허출원 현황(2000년 기준)

- 총 2,140건으로 '92년(한·중 수교)대비 10배이상 증가
- 중국내 다출원 국가중 일본, 미국, 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

□ 그 일환으로

- 양국 특허심사관이 공동으로 선행기술 조사·심사를 하는「공동 심사 프로젝트」를 추진하고
- 현재 발명의 우선권 주장을 위해, 양국 출원인이 상대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우선권 증명서류를
 - 양국 특허청이 전자매체에 의해 직접 교환기로 하였음

□ 양국 청장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양국간 출원증가에 대응하여

- 양국에 공통 출원된 양국민의 발명에 대해
 -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설정해주고 중복심사로 인한 출원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
 - 심사결과와 공동 활용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
- 이를 위해 특정 기술분야를 선정해 양청 심사관이 공동으로
 - 선행기술을 조사·심사하는 「공동심사 프로젝트」를 추진하고
 - 이를 통해 양국간 심사제도 및 실무를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심사결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음

□ 또한, 양국민의 상대국 특허출원시

-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매체에 의해 직접 교환기로 합의함으로써
-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등 양국민 출원인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도록 하였음

□ 이 밖에도 심사·심판관 교류 및 특허정보의 교환을 추진하고

- 세계무역기구(WTO)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(WIPO)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.
- 국제 지재권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음

행정조직에도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새바람

- 특허청, 「특허고객 콜센터」 개통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체제 구축

- 특허청은 단 한번의 전화로, 단 한번의 클릭으로, 전국 어디에서나 특허·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일시에 해결해 주는 「특허고객 콜센터」를 2002. 3. 20일부터 설치·운영키로 하였다.
- 「특허고객 콜센터」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상담관 5명과 상담원 24명이 30회선의 전화선과 고속인터넷통신망을 활용하여 특허·실용신안·의장·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모든 상담업무와 각종 자료의 제공 등을 One Stop Service로 해결해 주는 대민종합민원서비스기관으로서, 민원인이 전국 어디서나 한 통의 전화 「1544-8080」나 특허청 홈페이지 <http://kipo.go.kr>에 접속하시면 대기시간 없이 즉시상담할 수 있고 상담예약도 가능하며 시내전화요금만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-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① 특허·실용신안·의장·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절차와 각종 서식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상담·안내 ② 출원·심사·심판·등록 등과 관련한 절차적 진행상황 ③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의 검색·활용방법 ④ 산업재산권 침해 등 분쟁시 대응방법 등이며, 전자출원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「현장출동도우미」가 직접 찾아가서 해결도 해줍니다.

특허청, 2002년 고객맞춤형 지식재산권 순회설명회 개최

○ 「고객맞춤형 지식재산권 순회 설명회」 100여회 개최

- 특허청(청장 김광림)은 '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'의 일환으로 3월 15일 전주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중소·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02년도 「고객맞춤형 지식재산권 순회 설명회」를 총 100여회 이상 개최

할 방침이다.

○ 「5인이상 특허권 보유업체 4,081개에서 19,501개로 400% 증가」

- '99년 9월부터 이 운동을 추진해 온 결과 특허·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24,065개에서 49,919개로 107%증가하였으며 이 중 5인이상 중소기업은 4,081개에서 19,501개로 증가하였다
- 금년에는 107회의 설명회를 통하여 6,000여개의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이 특허·실용신안 권리를 갖게 할 계획이다.

- 특허청은 2002. 3. 15.(금) 전북 전주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, 지방상의, 업종단체, 여성협회 등과 공동으로 「고객맞춤형 지식재산권 순회 설명회」를 개최할 예정이다.
-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무기이자 생존수단이라는 인식하에 중소기업이 독자기술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1999년 9월부터 『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』을 추진해 온 결과, 특허·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※ 중소기업(전체) 24,065개 → 49,919개(107.4% 증가) 중소제조업체(5인이상) 4,081개 → 19,501개(377.8% 증가)

- 이번 설명회는 업종 단체를 대상으로 '3차원 입체영상기술', '자동차용변속기 구조 및 제어 기술', '인터넷 BM특허' 등과 같은 전문강좌와 지자체, 지역상공회의소, 여성을 대상으로 '특허출원 및 관리전략', '특허기술 활용화방안', '지식재산권제도개론' 등의 일반 교양강좌로 대상에 따라 차별화 교육을 실시하며, PM(Patent Map)과목 48개, 일반과목 17개 등 총 65개 과목 중 신청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객맞춤형 강의로 진행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.
- 아울러, 설명회장에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, 특허청 심사관,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특허정보원 소속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「중소기업 지식재산권 Help desk」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장 애로사항 상담 및 무료변리상담, 특허기술사업화 안내, 특허정보 제공 안내 등도 실시하며,
 -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'특허관리 가이드 북', '각 강의과목의 교재' 등 다양한 교육·홍보 책자를 무료로 배포한다.
- 특허청은 이러한 고객맞춤형 설명회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경제의 근간이 될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·활용을 촉진

특허청24시

시키는 등 특허를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- 또한, 본 설명회와는 별도로 「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」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, 지자체와의 특허협력사업, 업종단체별 협약 체결, 심사관 자매결연사업 전개, 무료변리사업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.

월드컵기간중 외국인에게 제특허연수부 생활관 56실 제공

국가적 행사인 2002월드컵축구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지원하고, 세계 특허관계자와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특허청의 국제특허연수부 생활관을 외국인 관전자에게 숙소로 제공할 계획임

- 특허청은 특허업무의 국제화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동향 파악과 교류·협력을 통한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,
- 2002월드컵 축구경기를 통하여 국제특허분야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세계각국의 특허분야 관련 관계자를 2002월드컵 축구축제의 한마당에 초청하고, 국제적 특허업무 관련 관계자와 함께하는 월드컵축제가 되어 특허분야의 상호교류·협력증대와 함께 2002월드컵 축구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,
- 특허청장은 대전에 소재한 국제특허연수부의 시설을 정비하여, 2002. 6. 5(수)~6. 24(월)까지 20일간 월드컵축구예선전 대전경기 4개국(미국, 스페인, 폴란드, 남아공)의 특허관련 관계자 및 가족과 대전광역시에 숙박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외국인들에게 생활관 56실을 개방하여 1일 112명, 연 2,240명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적인 행사를 지원키로 하였음.